

11 정년연구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정년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고영기
서 기 이병설

1. 조직

- 위 원 장 : 고영기
- 회 계 : 정시호
- 위 원 : 박인규
- 서 기 : 이병설
- 총 무 : 김종일

2. 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9. 11. 25(월) 09: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회원호명하니 전원참석하여 회의진행하다.
 - ②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고영기 목사, 서기 이병설 목사, 회계 : 정시호 장로,
총무 김종일 목사, 위원 박인규 장로
 - ③ 각 위원들은 제104회 총회 결의사항 및 현의안을 참조하여 다음 모임에 논의하기로 하다.
 - ④ 차기회의는 12월 10일(화) 11시, 총회본부에서 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19. 12. 10(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수입 안전에 대한 연구주제를 아래와 같이 보고받고 연구자선정은 위원장, 서기에게 맡기도록 하다.
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정년에 관한 연구-신학적, 성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나. 70세 정년이 교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정년에 관한 연구-근로자 근로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라. 목회자 연령과 교회성장과의 상관관계 연구-사례중심으로
 - ③ 연구주제 발표 및 토의를 위한 공청회를 2020년 6월 8일(월)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고 연구 및 공청회를 위한 추경을 청원하기로 하다.
 - ④ 정년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⑤ 차기회의는 2020년 1월 21일(화) 11시에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1. 21(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예산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③ 연구자 선정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고, 연구결과는 3월 중순까지 받아 추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다.
- ④ 설문조사 내용은 2020년 2월 26일(수)에 선정하여 3월 중 제104회기 총회총대에게 발송하기로 하다.
- ⑤ 공청회는 6월이 아닌 2020년 4월 28일(화)로 예정하고 장소선정은 위원장에서 위임하기로 하다.
- ⑥ 차기회의는 2020년 2월 26일(수) 11시에 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2. 26(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공청회는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새에덴교회에서 하기로 하고 새에덴교회로 재정청원과 장소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③ 공청회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가. 순서자 선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나. 소책자를 제작하기로 하고 3월 18일까지 내용을 확정하기로 하다.
다. 공청회 신문광고를 3월 31일자 기독교신문에 하기로 하다.
- ④ 설문조사 내용을 확정하고 제104회 총회총대에게 설문조사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를 문자로 발송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 ⑤ 차기회의는 2020년 3월 18일(수) 11시에 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3. 18(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정년연구를 위한 공청회는 총대 및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참가비 없이 진행하기로 하다.
- ③ 설문은 3월 19일까지 연장하여 받기로 하고 설문결과를 기독교신문사 기자에게 전달하여 분석기사를 게재하기로 하되 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 ④ 연구결과와 설문조사결과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기로 하고 소책자 제작은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 ⑤ 공청회 신문광고 내용검토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 ⑥ 차기회의는 2020년 4월 10일(금) 11시에 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 일 시 : 2020. 4. 10(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공청회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대응책을 포함한 사전준비사항을 새에덴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 ③ 차기모임은 4월 21일(화) 9시 30분, 새에덴교회에서 하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 일 시 : 2020. 7. 20(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회 선거 입후보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장을 대신하여 서기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정년연구위원회 결산현황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다.
 - ④ 정년에 대한 최종결론을 위해 제105회 총회에 연구기간 1년 연장을 청원하기로 하고 제105회 총회 보고를 위한 결론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정년연구위원회 최종 보고

1.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

가. 정년 관련

- 경기남1노회장 김용철 씨가 현의한 목사, 장로 정년 연령(75세) 연장 청원의 건과
-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현의한 목사, 장로 75세 정년 연장 현의의 건과
- 서수원2노회장 주만철 씨가 현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 연장 현의의 건과
- 부천노회장 이세광 씨가 현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 연장 청원의 건과
- 의산노회장 장병록 씨가 현의한 목사, 장로 정년 75세 연장 청원의 건과
- 한남노회장 이병설 씨가 현의한 목회자 정년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 충북노회장 서성원 씨가 현의한 70세에서 75세로 정년제 상향 현의의 건과
- 삼산노회장 정은주 씨가 현의한 교단헌법 개정(목사, 장로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현의의 건과
- 서인천노회장 조정봉 씨가 현의한 목사, 장로(항존직)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현의의 건과
- 경중노회장 박병찬 씨가 현의한 농어촌교회 시무장로 연령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 충청노회장 최명호 씨가 현의한 농어촌교회 장로 75세 정년제 연장 실시 현의의 건과
- 서인천노회장 조정봉 씨가 현의한 항존직 정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 소래노회장 김현웅 씨가 현의한 70세 정년제 연장 현의의 건과
- 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현의한 100세 시대인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 인적자원의 활용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시무직의 정년을 만75세로 연장 청원의 건과
- 전북서노회장 진용길 씨가 현의한 목사와 장로 은퇴시기 연장 및 장로 임직 나이 하향 조정 헌법 개정 청원의 건과
- 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현의한 항존직의 시무연한 75세 연장 현의의 건과

나. 정년 하향 관련

- 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현의한 위임목사 시무정년을 만68세로 하향 조정하되 헌법 개정 후 2년 후부터 시행 현의의 건과

다. 정년연구위원회 조직 관련

- 동대전중앙노회장 류재이 씨가 현의한 교역자 정년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과
- 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현의한 목사, 장로 정년 연장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 현의의 건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연구 보고

1) 총회 정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① 대 상 : 제104회 총회총대
- ② 설문기간 : 2020. 3. 9(월) ~ 3. 18(수)
- ③ 방 법 : 설문조사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 문자발송

④ 응답자수 : 802명(목사 479명, 장로 323명)

⑤ 조사결과

a.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전체	백분율
1) 목사	479		479	60%
2) 장로		323	323	40%
계	479	323	802	100%

b.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	백분율	장로	백분율	전체	백분율
1) 50세 이하	7	1%	6	2%	13	2%
2) 51~60세	167	35%	44	14%	211	26%
3) 61~65세	216	45%	132	41%	348	43%
4) 66세 이상	89	19%	141	44%	230	29%
계	479	100%	323	100%	802	100%

c. 귀하가 섬기는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속합니까?

	목사	백분율	장로	백분율	전체	백분율
1) 농어촌	85	18%	58	18%	143	18%
2) 대도시	142	30%	121	37%	263	33%
3) 수도권	119	25%	67	21%	186	23%
4) 중,소도시	133	28%	77	24%	210	26%
계	479	100%	323	100%	802	100%

d. 귀하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목사	백분율	장로	백분율	전체	백분율
1) 100명 미만	173	36%	60	19%	233	29%
2) 100명~300명 미만	169	35%	105	33%	274	34%
3) 300명~1,000명 미만	91	19%	96	30%	187	23%
4) 1,000명 이상	46	10%	62	19%	108	13%
계	479	100%	323	100%	802	100%

e. 교단이 정하고 있는 만70세 정년을 개혁주의 입장에 볼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목사	백분율	장로	백분율	전체	백분율
1) 조정해야 한다.	253	53%	142	44%	395	49%
2)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26	47%	181	56%	407	51%
계	479	100%	323	100%	802	100%



f. 농어촌 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만70세 정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니까?

	목사	백분율	장로	백분율	전체	백분율
1)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254	53%	106	33%	360	45%
2) 정년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25	5%	69	21%	94	12%
3)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00	42%	148	46%	348	43%
계	479	100%	323	100%	802	100%

g. 귀하는 만70세 정년을 조정한다면 몇 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사	백분율	장로	백분율	전체	백분율
1) 만70세 이하	45	9%	90	28%	135	17%
2) 만73세	104	22%	49	15%	153	19%
3) 만75세	146	30%	52	16%	198	25%
4) 현행대로	184	38%	132	41%	316	39%
계	479	100%	323	100%	802	100%

⑤ 결과분석

제104회 총회 총대1568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단이 정하고 있는 만70세 정년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둘째, 농어촌 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셋째, 만70세 정년을 조정한다면 몇 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기간은 2020년 3월 9일-18일까지 조사하였다. 총 802명이 응답해 51.1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중에 목사총대는 479명(59.73%)이고, 장로 총대는 323명(40.27%)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들은 현행대로 하자(43%),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45%), 정년을 하향조정해야 한다(12%) 였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목사 총대의 53.03%가 정년연장을 찬성하였고, 장로총대는 32.82%가 정년연장을 찬성하였다. 특히 제104회 총회에 상정된 정년에 관한 내용 중 “농어촌 교회의 폐당회에 관한 현실 등을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설문의 결과는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총대들은 65.04%가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결과로 나왔다.

이 밖에도 섬기는 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을수록, 총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결과로 나왔다.

2) 총회 정년연구를 위한 공청회

- ① 대 상 : 제104회 총회총대 및 관심있는 분들
- ② 일 시 : 2020. 4. 21(화) 10:30 ~ 13:00
- ③ 장 소 : 새에덴교회
- ④ 내 용 : 연구주제 발표

가. 정년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서창원 교수)

서창원 교수는 성경에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 직에도 나이제한이 없었다.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 교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이 아니다. 더욱이 교회는 분명 이익창출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매주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참된 신뢰 안에서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공동체가 교회이다” 며 정년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목사 정년 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양현표 교수)

양현표 교수는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회기획행정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음을 밝혔다. 양현표 교수는 70세 정년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정년 연장을 옹호하는 의견으로는 “평균수명이 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이다. 건강지수가 현격히 좋아졌다. 성경과 총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생계형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호한다. 고령화되는 농어촌 교회의 폐 당회를 막는 길이다. 목회자 지원자 수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등의 의견이 있으며, 시무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견해로서 “노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시대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어긋난다. 차세대에 주어질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양현표 교수는 “두 입장이 모두 나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으나 차이점은 “옹호하는 견해는 대체로 데이터와 현실에 근거한 주장임에 비해, 반대하는 견해는 대체로 명분과 감정적 접근에 의한 주장이라”고 설명하였다.

양현표 교수는 교단의 미래를 볼 때 “우리 총회가 지금의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향후 10여 년 전후로부터 목사 부족 사태가 오리라”고 예측하며 “총회의 균형 잡힌 목사 수급을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지 정년 연장이라는 단기적 처방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특별히 신학교 지원자의 숫자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총회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장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다.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 목회자 정년이 본 교단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이희성 교수)

이희성 교수는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하여 발표하였고 미국 교단인 미국 개혁신교회(RCA)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교단은 목회자의 70세 정년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70세가 된 목회자도 정년을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70세가 된 목회자라도 개교회와의 합의하에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면 노회를 거쳐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든, 아니면 일정 기간 위임의 형식으로 목회지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를 마쳤다. 따라서 본 교단도 교단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 혹은 축소가 아닌, 현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교회의 목회방식, 교회문화, 담임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등 목회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교단은 정년에 대한 큰 틀은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인 연장이나 개 교회의 목회 환경을 고려하여 개교회의 정관이나 공동의회와 소속 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라. 목회자 은퇴연장에 관한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연구(김근수 교수)

김근수 교수는 우리 교단이 정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며 정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고착화된 정년제의 문제를 분석했는데 심각한 사회학적 문제로는 ‘사회적 배제’와 ‘부정적인 고정관점’ ‘역할퇴장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오늘날 노년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부재,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생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년연장의 긍정적 측면의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레드 다이아몬드(Jered Diamond)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노회의 전통적 역할의 중요성을 활용하라. 둘째, 급속한 변화로 노인의 경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귀하게 된 것을 활용하라. 셋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 등과 같은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라.

끝으로 김 교수는 “교단의 정년제 규정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교회와 목회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본다”며 결론을 맺고 발제를 마쳤다.

3. 결론

이에 정년연구위원회는 제104회 총회로부터 정년연구에 대한 수임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보고합니다.

정년연구위원회는 정년에 대해 연장하거나 혹은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년에 대해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 사항이기에 그간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한 바를 총회에 보고하오니 총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정년연구위원회 연장 및 재정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정년연구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한 회기 연장 청원

- 1) 정년에 대한 사항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 2) 현실적으로 도시교회, 농어촌 교회, 조직 및 미조직 교회들의 직면한 현안문제이기에 정년과 관련된 다방면에 대한 교단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2. 재청 청원 : 총 1,000만원

- 1) 회의비 : 250만원
- 2) 연구비 : 500만원
- 3) 자료집 제작비 : 250만원

2020년 9월

정 년 연 구 위 원 회

위원장 고 영 기

서 기 이 병 설